

조기·굴비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를 통해 명절 기간 수산물 물가를 잡는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9월 11일 노량진수산물시장 수산물 물가와 수급관리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요 추석 성수품에 대해 비축물량 공급, 할인행사 등을 통해 수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① 조기·굴비 : 비축수산물 방출, 정부 할인행사 진행으로 가격 안정 전망

□ 예년보다 이른 추석으로 인해 아직 주 생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조기·굴비 가격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 참조기 소비자가격(원/마리, aT) : ('24.9.10 가격) 1,508원, 작년 추석 전주 ('23.9.22) 대비 약 23.2% 상승

○ 이에 해양수산부는 추석 대책기간 동안 정부 비축물량 공급(조기 160톤 등 총 1.3만톤), 역대 최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온·오프라인 할인행사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으로, 8월 말부터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참조기 소비지가격(원/마리, aT) : (8.26) 1,835 → (9.9) 1,508 (8.26 대비 △17.8%)

○ 특히, 이번 주부터는 대형마트 중심으로 참조기 할인율을 50%에서 최대 60%까지 상향하였으며, 굴비를 정상가의 절반 수준으로 구성한 '추석 민생 선물세트'도 수협 온라인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에서는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할인해*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조기·굴비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행사기간 (9월 9일~15일, 국산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 환급)

(일주일 2만원 한도, 3만 4천원 이상 ~ 6만 7천원 미만→ 1만원 환급, 6만 7천원 이상→2만원 환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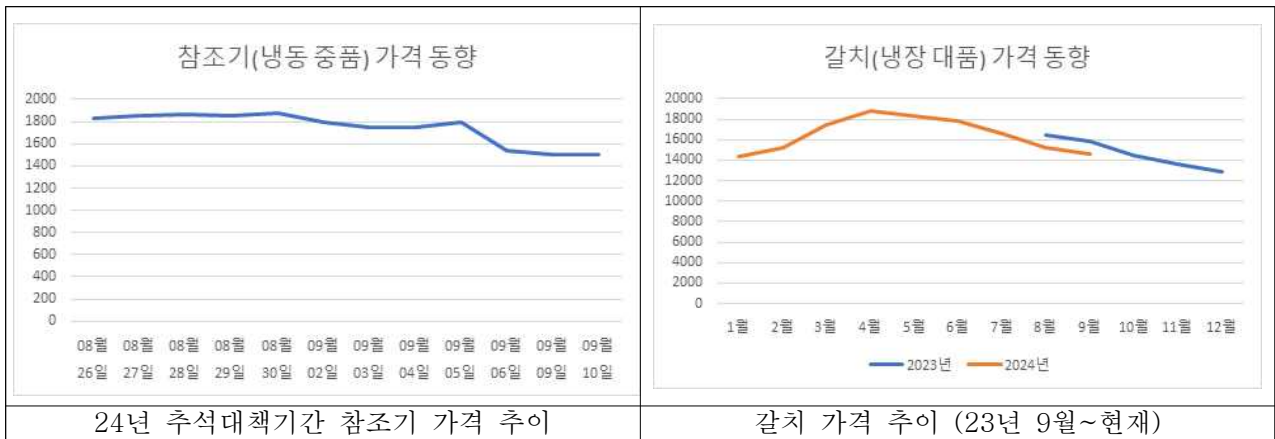
㉔ 갈치 : '23년 대비 낮은 가격이며, 정부 할인행사 등으로 안정세 유지

-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 확대, 할인행사 등을 통해 9월 현재 갈치 가격은 14,383원(냉장 대품, aT기준)으로 작년 추석 전주 대비 약 6.2%* 하락하였습니다.

* ('23.9.22) 15,338원 → ('24.9.10) 14,383원 (△6.2%)

- 8.22부터 진행한 할인지원행사를 통해 가격이 지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앞으로도 갈치 수급·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참조기, 갈치 가격 동향 >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1일(수) 서울 노량진수산물시장을 찾아 수산물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하고, 수협중앙회장, 상인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강 장관은 수산물 판매 점포를 돌아보며 수산물 물가 동향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온누리상품권도 환급받아 보며, 환급 행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며, “추석까지 남은 기간 수산물 수급과 물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황준성	(044-200-5420)
	수산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윤	(044-200-5429)
	수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정기원	(044-200-5440)
	유통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수정	(044-200-5447)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승준	(044-200-5610)
	어촌양식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예진	(044-200-5614)